

금호타이어 노조, 조합원 의견 수렴 분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집행부가 2018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수정안 마련과 다음주에 예정된 재교섭 준비를 위해 조합원 의견 수렴에 분주하다.

우려됐던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인 사퇴 요구는 잠잠한 가운데 집행부는 지난 20일 사측과 실무 접촉을 개시하고 앞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드러낸 불만을 잠재울 단체협약 수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무효 8표, 찬성 650표(24.9%), 반대 1961표(74.7%)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큰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당시 노조 집행부는 투표에 앞서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노조원의 총고용과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지지해 호소했지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부결...수정안 마련에 주력

"수정안 확정되면 다음주에 단체협약 교섭 재개"

사측 "경영정상화 노조의 합리적인 판단에 달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여유 인력 전환배치', '임금체계 개선', '정년 연장안' 등을 놓고 반발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타이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제시한 '인원 전환배치'에 대해 노조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측은 생산물량 감소로 올해 광주·곡성·평택공장 등에서 하루 180여명의 여유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공장별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을 생산라인 가동률에 맞춰 탄력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었다.

임금체계 개선 부분에서는 '장여

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지 추스리기에 나선 노조 집행부는 전대진 사장의 일정이 확정되면 다음주에 곧바로 재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가장 반발이 컸던 여유 인력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고, 수정 교섭안에는 앞서 조합원들이 반발했던 전체인이 포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현재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앞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현장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를 추스려 재교섭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와 단체협약 재교섭을 앞둔 금호타이어 사측은 '영업이익 적자와 주문(오더) 감소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생존과 노사 상생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부결되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2018년 단체교섭은 경영위기 극복과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으로 교섭의 분명한 목적은 노사가 협력해서 공동의 생존과 이익창출 방안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경영위기 극복과 생존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회사 경영정상화는 노조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동구 "담배없는 금연아파트 신청하세요"

광주 동구가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81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홍보에 나섰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거주세대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보건소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동구는 금연아파트 홍보를 위해 입주민 찬반조사, 아파트 방문 설명, 모집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을 진행한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될 경우 ▲금연아파트현관·금연표지판 설치 ▲입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교육 운영 ▲금연캠페인 실시 ▲금연계기 트키퍼 활용 등이 지원된다.

현재 동구 금연아파트는 2개소(계림동 두산위브, 운림동 라인2차)로 입주민들의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명품 예비부부학교 운영

광주 서구가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에서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명품 예비부부학교를 진행한다.

명품 예비부부학교는 부부간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것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3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는 명품 예비부부학교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교제중인 미혼남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나와 배우자의 성격유형 알기', '배우자를 위한 사랑의 언어 찾기', '부부 헌법 만들기',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대화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접수는 전화 및 인터넷 서구청 홈페이지 통합교육방(http://www.sogu.gwangju.kr)에서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남구 "감염병 사전 차단 방역소독 실시"

광주 남구는 감염병 사전 차단과 예방 관리를 위해 연중 방역활동과 함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으로 즉각 출동해 방역활동을 전개하는 방역콜센터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 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모기 등 각종 유충의 근거지인 정화조를 대상으로 유충 구제를 실시했다.

또 해빙기를 맞아 이달부터 4월까지 공중 화장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유충 구제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관내 경로당 229개소와 하수구 및 하천, 쓰레기 투기장 등 98곳에 대해서도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철을 앞둔 시점인 5월부터는 남구 관내 행정동을 방문해 순차적으로 소독하는 하계 집중 방역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북구, 자치구 최초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광주 북구가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북구는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2월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고 전술 전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

수원동시민안전점검단, 안전한 마을 업무 협약

21일 광주 광산구 수원동시민안전점검단(단장 박병기)과 (사)국민다 안전교육협회(회장분부장 김원규), 수원동(동장 문만수)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수원마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애주기·안전분야별 교육 실시 △안전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안전사업 실행 등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 협약에 따라 28일부터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는 시민안전점검단 역량 강화 교육에 들어가고, 단원들은 안전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임형택 기자

기자/수/첩/

조합장 '돈'으로 뽑아선 안 된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예상했던 대로 혼탁과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방법자가 다시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의 혼탁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당선된 조합장들이 불법대출이나 채용비리에 앞장서면서 조합원들과 지역 경제에 주름살만 늘어 놓았다.

돈을 뿌려 당선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조합장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조합장이 해당 지역에서 제왕적 권한과 지위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203곳의 조합장을 뽑는 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면 4년 임기 동안 5천~8천 연봉에 성과급·활동비 등을 별도로 받는다. 큰 조합들은 역대 연봉에 비해서 차량 운전기사까지 채용하는 등 단체장급 권한을 행사한다. 더구나 농협 업무와 각종 인사권까지 함께 지니는 등 각종 사업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을 이끌 리더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조합과 지역경제를 살릴 참신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고 조합원들은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으며, 금품수수행위가 있으면 신고·제보하는 게 어엿는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농촌지역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역할이 조합원의 가계경제와 복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질적 문제인 금품선거와 혈연·지연에 따른 투표를 근절해 조합장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다.

깨끗하고 소중한 한 표를 양심에 담아 투표에 꼭 참여하여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제1대 국회의원선거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염영=조대호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광주문화재단을 방문해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9년도 경영성과 창출 계획서를 보고받았다.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뮤지컬, 내년 기념공연

광주문화재단 성과창출계획 보고

창작뮤지컬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작돼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기념 공연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21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재한 경영성과 창출계획 보고회에서 올해 문화시민, 문화인터, 문화활성, 문화콘텐츠 등 4대 성과 목표와 함께 ▲110만 시민에 문화예술 제공 ▲청년 800명에 문화인터 제공 ▲세계수영선수권대회 7개 문화프로그램 제공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뮤지컬 연내 갈라 공연 추진 등을 제시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5월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뮤지컬 제작에 들어가 12월에 갈라 공연을 할 계획이다.

이와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기념공연도 예정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또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11건에서 13건으로 확대하고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운영도 혁신하기로 했다.

문화시민 분야에서는 지난해 99만명에 비해 10%가 늘어난 110만 광주시민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제공을 목표로 364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74개 문화예술 교육단체 지원, 소외계층 등 복지지원 수혜자 확대, 광주형 문화제나 운동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은홍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지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